

# 月南寺址 眞覺國師 圓照塔碑의 특징과 양식고찰

신용철\*

I. 머리말
II. 진각국사비의 현황과 특징
III. 고려중기 탑비 조영의 추이와 진각국사탑비의 문제
IV. 진각국사비가 고려탑비에서 갖는 미술사적 의의
V. 맺음말

## I. 머리말

탑비는 국사나 왕사에게만 허락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조형물이다. 따라서 탑비 건립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많은 제자 승려들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재가신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결국 탑비의 연구는 탑과 함께 당대 최고의 기술이 나타나는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산은 기울어져도 이 비석은 옮기지 못하리라(此山寧騫 此石不遷)” 진각국사 원조탑비에 새겨진 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이다. 비록 오랜시간에 비의 글씨는 탈락되고 일부 파손

\* 양산시립박물관

\*\* 본고는 2017년 11월 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한국건축역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진 월남사의 가람 구조와 진각국사 원조탑비의 성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도 1 진각국사 원조탑비,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되었으나 찬자의 뜻대로 1250년 비를 월남사에 건립한지 76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굳건히 원 장소를 지키고 있다(도 1).

월남사지 진각국사 원조탑비(이하 진각국사비로 약칭)는 개인의 행장을 담은 탑비로는 2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다. 첫째, 탑과 비의 건립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매우 원거리에 위치한 점이다. 둘째 탑이 건립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무엇보다 고려 중기 이후 급격히 쇠락하는 고려 탑비사에 있어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탑과 비가 떨어진 이유와 비가 월남사에 건립된 자세한 정황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는 비문을 통한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은 수선사 2대 주지로서 진각국사의 행장과 앞서 언급한 의문에 대한 문제와 의견 제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작 탑비 자체에 대한 특징이나 본 탑비가 석조미술사에서 갖는 위치 등에 대하여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진각국사비의 특징과 함께 이를 토대로 고려시대 탑비 조영사에서 갖는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탑비가 고려시대 석조미술사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재정립해보고자 한다.

## Ⅱ. 진각국사비의 현황과 특징

### 1. 건립과 현황

본 비의 주인공인 眞覺國師 慧謙(1178~1234)은 보조국사 지눌의 법맥을 이은 2대손으로 1210년(희종6) 지눌 입적 후 수선사의 주지가 되었다(도 2). 1219년 왕이 단속사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수차례 사양하였고 이듬해인 1220년 단속사 주지로 부임하였지만 주로 수선사에 거주하였다. 1233년 11월 본사에서 병세를 보이고 고종이 어의를 보내 진찰하였다. 이듬해 봄에 월등사로

옮겼으나 6월 26일 시자인 麻谷에게 임중계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입적 다음날 월등사에서 다비한 후 유골을 수습하여 수선사로 옮기고 1235년 5월 수선사내 廣遠寺 북쪽에 부도를 세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광원사는 진각국사가 창건한 사찰이기도 하다.

그러나 탑비는 광원사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다음 월남사에 세워지게 된다. 탑비가 세워진 과정에서 鄭奮은 국사의 행장에 해당하는 행록을 작성했다. 이후 진각국사의 법맥을 이은 夢如가 진양공 최우에게 청하고 최우가 왕에게 비의 건립을 주청하자 국왕이 이규보에게 명하여 비문을 찬하도록 하였다. 이후 최자가 음기를 짓고, 탁언이 비문을 써 1250년 4월 탑비의 완성을 이루었다<sup>1)</sup>(도3).

일반적으로 승탑의 건립은 장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적 이후 건립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탑비는 건립 이후 시간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sup> 예를 들면 <보리사 대경대사탑비문>에는 비를 세우기 위해 10여년간 돌을 구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sup>3)</sup> 또한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의 경우 원래 翰林學士 前禮部侍郎 朴仁範이 비문을 찬하기로 하였는데, 병으로 왕명을 받들지 못하고 사망하자 崔彦攜가 일을 맡아 결국 탑이 완성되고 탑비의 건립까지 17년이나 걸리게 되었다.<sup>4)</sup>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지탑비>의 경우 정내에 있는 선사의 전범에 따라 南海에서 석판을 구하여 배로 운반하고자 하



도 2 진각국사 영정, 송광사소장, 보물 제1043호



도 3 진각국사비 전경, 월남사지, 보물 제313호

1 『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전』(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5), pp. 264-276.

2 물론 나말려초 혼란한 가운데 징효대사 절중(입적후 탑비건립까지 44년)과 선각왕사 형미(입적후 탑비건립까지 29년)처럼 탑과 탑비의 건립에 오랜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3 …此際他山之石 未勒高文 所以門徒每度傷心 莫窺墮淚 所恨泊于入滅 首尾十春(하략) 앞의 책, p. 14.

4 …仍命翰林學士 前守禮部侍郎 朴仁範 撰碑文也 其仁範 纔惟奉命 且未修文 因臥漳濱 忽嗟莊壑(하략) 위의 책, p. 62.

였다. 그러나 비용이 과다하여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인근 희양산 기슭에서 청백색의 석판을 구해 완성하였으니 이를 천우신조에 부합하는 일이라 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대부분은 문도들에게 받은 스님의 행장을 찬하고 또 이를 흠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진각국사비의 경우 이규보가 정분이 만든 행록을 받고 또 마곡의 임종기를 받아 비문을 지은

것이 1241년이었으나 실제 비를 세운 것은 이규보가 사망하고 이보다 9년이 지난 1250년이었다. 또 崔滋가 음기를 짓고 이를 실제 비로 세우기까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비의 건립이 늦었던 점과 탑과 비의 건립장소가 상당히 떨어진 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체로 스승인 보조지눌의 탑과 비가 수선사에 존재하는 점과 탑비는 다비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는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sup>6</sup>

진각국사비는 현재 월남사지 삼층석탑에서 약 100m 서북 10시 방향의 비각에 위치해 있다. 귀부는 남향을 하고 있으며 비신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귀부는 방형 지대석과 동일석으로 마련하였다. 진각국사비는 지대석이 223×260cm로 크기로 보아도 대형



도 4 진각국사비 용두부분

5 “왕이 허락하였으나 石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南海의 해변인 汝澗縣에서 채취하여 배로 운반해 오도록하였으나 비용을 계산하니 천만냥만 드는 것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재가를 받아 그곳에 가서 채석공사를 시작하려하였는데, 뜻밖에 門人이 本山의 기슭에서 石版을 캐냈으니 모양이 매우 크고 높고 넓었으며, 빛은 靑白色이어서 번거롭게 다듬지 않더라도 별다른 흠이 없을 뿐 아니라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天祐神助에 부합하는 일이었다.…(하략)” 위의 책, p. 104.

6 진각국사를 제외하고 탑과 탑비가 서로 다른 사찰에 건립되는 예는 신라시대 낭공대사로 탑은 석남사, 비는 태자사에 있으며 고려시대의 예로는 자진원오국사로 탑은 대원사에 비는 불대사(비는 유실)에 있다. 엄기표,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pp. 520-524.

이 밖에 고승의 탑비를 한 장소에 밀집시키지 않으려는 고려의 관습이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허홍식, 『월남사 진각국사 탑비의 복원을 위한 준비 작업』,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 (2015), pp. 69-70. 최우의 뒤를 이은 최항이 월남사에 탑비를 건립함으로써 해심의 제자였던 인연을 강조하고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배종민, 『월남사와 최씨 무인정권』, 『호남문화연구』 46 (2009) 또 비슷한 시기 백련사에 세워진 원묘국사 요세의 비에 대응하기 위해 세웠다고 보기도 한다. 이병희, 『고려, 조선초기 월남사의 처지와 위상』,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대회』 (2015).

에 속한다. 귀부는 전체적으로 웅장하며 각부의 비례감이 적절한 느낌을 준다. 귀두는 목을 치켜세워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입을 크게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로 입 내부의 보주를 고정시켰고 용두로 표현하였다. 특이한 점은 입 안쪽에 윗어금니가 날카롭게 솟아 있다(도 4).<sup>7</sup>

고려시대 일반적인 귀두가 앞으로 뺀어 측면에서 보면 ㄱ자형에 가까운데 본 비의 귀두는 목을 길게 내어 측면관이 거의 S자에 가깝도록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용두는 입부위가 일부 결손되었으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귀, 들창코와 크게 뜬 눈과 머리의 뿔까지 정확히 표현하였다. 고려시대 대부분 귀부의 용이 입 옆으로 瑞氣形 갈귀를 표현한 것에 비하여 이 귀두는 입 주변으로 수염형태로 표현하였다. 정면 목에서 가슴에 이르는 부분에는 여러조의 주름을 층단형으로 표현하여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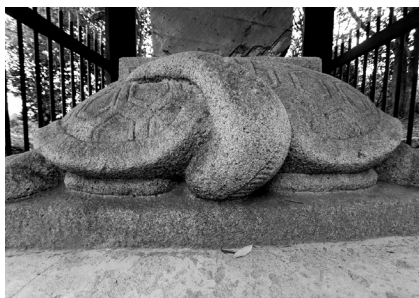
귀갑은 2조의 테두리로 돌을 새긴 육각형 귀갑문을 장식했는데, 크기는 너비 15~18cm, 길이 22~25cm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고 외곽 주연부는 띠돌림으로 마무리 하였다(도 5). 비좌 뒤쪽으로 상부에는 돌을 새김으로 등줄기를 표현하였다. 발은 앞뒤발을 귀갑에서 내어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모두 4조의 날카로운 발톱이 잘 드러나 있다. 앞발 발톱을 땅에 깊이 찍어 넣어 앞을 향하는 역동감을 주었으며 뒷발은 발이 몸체에서 전면을 향하게 꺾인 형상이며 주름을 주어 표현하였다(도 6). 꼬리는 비교적 길고 두꺼운 편으로 왼쪽 귀갑위로 올라 있는데, 오른쪽 하단으로 역시 주름무늬를 표현하여 사실성을 강조하였다(도 7).



도 5 진각국사비 귀갑



도 6 진각국사비 귀부 발 (상-앞발, 하-뒷발)



도 7 진각국사비 후면

<sup>7</sup> 이처럼 송곳니와 윗어금니를 함께 표현하는 방식은 <보현사 낭원대사탑비(940)>, <홍법사 진공대사탑비(940)>, <고달사 원종대사탑비(975)> 등 주로 10세기경에 주로 나타난다.

귀갑 중앙 상단에 놓인 비좌는 용두 뒷쪽은 7.5cm, 몸통쪽 측면은 33.0cm의 높이로 마련하였다. 전후면은 공간 구획상 문양이 없이 테두리만 모각하였고 측면에만 문양을 넣었다. 비좌측면 문양곽은 동면이 51×22.5, 서면이 52×20.5cm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내부에는 좌우대칭의 구름문을 넣고 중앙에 圓文을 돌을새김으로 배치하였다. 형태와 배치의 의도로 보아 비좌 동면의 것은 日象文으로 서면의 것은 月象文으로 판단된다.

비좌상면에는 비신을 꽂을 수 있는 홈을 파 넣었다. 비신 홈 내부는 132×23cm로 마련했는데, 좌우측에 약 30cm의 턱을 두어 비신을 역뾰모양으로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표 1).

〈표 1〉 진각국사비 귀부 세부 형식

머리형태	귀갑문		귀갑외연	비좌			발톱형태	꼬리
	형태	내부문양		상면	정면	측면		
용두 (S자형)	육각형 (이중)	없음	띠형태 (문양없음)	없음	없음	운문, 일월상문	4조	주름문양

귀부의 현존 상태에 비해 비신은 훼손이 매우 심한 편이다. 현재는 상부가 완전히 파손 결실되었고 잔존하는 비는 최대높이 210cm, 너비 130.5cm, 최대 두께 14.5cm이다. 비신은 점판암 계열의 오석으로 원석 자체가 전면에서 보면 향좌측에서 향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크랙이 있다. 현재의 비가 귀부에 비해 빈약해 보이는 점도 이처럼 암석의 특성상 파괴된 비신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비가 잔존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비신을 2단의 홈을 두어 비좌에 꼽는 튼튼한 하부 방식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이다. 비문은 세로로 박리되는 특성상 전면은 완전히 박리 결실되어 버렸고 배면의 음기는 남아 일부 판독까지 가능한 상태이다. 배면을 참조

해 보면 비신의 외곽으로 너비 5.0cm의 문양대를 돌리고 내부에 유려한 당초문을 음각으로 새겼다.

원비의 전체를 상태를 알 수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고탁을 살펴보면 비신은 가로세로 125×266cm의 크기로 향우측상단의 일부 결실이 있다.<sup>8</sup> 일제강점기에 촬영



도 8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진각국사비편(국립광주박물관 제공)

<sup>8</sup> 허홍식, 앞의 논문, pp. 82-87. 비의 향우측상단이 파괴된 것을 이수가 떨어질 때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된 비신 배면 사진에는 파괴된 채 떨어져 있는 비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글자형태와 크리의 방향으로 볼 때 비석 전면 좌측측 상단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면에서 박리된 2개의 잔편이 보관중이다(도 8).

한편 진각국사비의 원래 상태를 추정함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이수부이다. 현재는 이수가 남아 있지 않으며,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도 9).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사진이나 1938년 후지타 료사쿠가 남긴 유리건판사진을 참조해 보면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9</sup> 그러나 이 사진에도 이수나 지붕돌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비의 이수 형태나 존재여부는 본 비의 원형 복원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표 2).



도 9 진각국사비 1938년경『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에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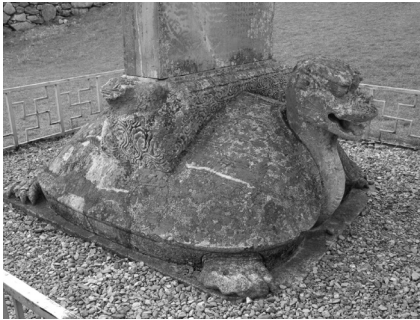
〈표 2〉 진각국사탑비 각부 실측치(실측 필자)

연번	각 부분		규격(cm)	비고
1	귀부 받침석		223×261	
2	귀부높이 (바닥~귀두상부)		170	
3	비좌 높이	정면	7.5	
		측면	33.0	
4	비좌 문양곽	동면	51×22.5	
		서면	52×20.5	
5	비좌 상면	전체크기	165×68	
		비신흘	132×23	
6	비신	최대폭	130.5	고탁본 비신 125×266
		최대높이	210.0	
		최대두께	14.5	
		문양각너비	5.0	당초문 음각

<sup>9</sup>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는 東京帝國大 사학과 출신으로 1922년 11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의 연구원으로 촉탁되어 조선에 온 후 1944년까지 조선과 만주의 유적 유물을 유리원판으로 촬영하여 총 1,876장을 남겼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유리원판에 대한 복원을 시작하여 몇 차례의 특별전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후지타는 1938년 월남사지를 방문하여 진각국사탑비와 삼층석탑을 촬영해 사진을 남겼다.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5).

## 2. 탑비의 특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각국사비의 귀부는 위엄이 넘치는 귀두에 귀갑은 2중 돌을새김으로 육각형문양을 만든 후 정연하게 배치하였을 뿐 세부적으로는 장식을 최소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귀부는 전체적으로 단순하지만 귀부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된 귀두로 인하여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귀부들이 거의 목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귀두를 웅크리는 듯 짧게 표현하거나 측면에서 보면 거의 ㄱ자형으로 곧추세우고 있게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진각국사비의 귀두는 측면관이 거의 S자형에 가깝게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고려시대에 좀처럼 볼 수 없는 형태로 <쌍봉사 철감선사비>, <보림사 보조국사 창성탑비(884)> 등 통일신라 호남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귀부형태에 나타난다. 따라서 진감국사비의 조형에는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도 10).



도 10 보림사 보조국사창성탑비(884년)



도 11 각연사 통일대사비 비좌부(10세기경)

다음으로 진감국사비 비좌 받침 좌우측면 등장하는 雲文과 함께 등장하는 日月象文에 주목하고 싶다. 고려시대 탑비는 높은 비좌를 갖추고 있어 대부분 문양을 시문하는데, 상면에는 예외없이 복련문이 시문되고 측면부에는 안상문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통일신라말에 건립된 <영암사지 동귀부>는 쌍어문이 배치되었고 <각연사 통일대사비>의 경우에는 중앙의 화염보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룡이 있어 특이하다. 이 밖에는 대부분 화문, 운문이 들어갈 뿐 동물문이나 일상문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도 11). 특히 비좌부에 일월상문이 새겨지는 경우는 진감국사비가 유일하다.

진각국사비의 비좌 문양은 좌우측이 유사한데, 중앙에 원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름과 구름꼬리가 양외곽을 향하게 마련하여<sup>10</sup> 마치 구름

<sup>10</sup> 비좌 측면에 좌우대칭의 운문만을 새긴 경우로는 <밀양 영원사지 귀부>가 있다.

사이를 뚫고 솟아난 일월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비의 좌측은 동쪽이기 때문에 日象文을 반대로 우측은 서쪽이기 때문에 月象文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도 12).

일월상문은 고대부터 인간과 함께 해온 친숙하면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문양이다. 중국 고대 신화에서는 火氣의 精은 태양이 되었고, 水氣는 달이 되었으며, 일월의 넘친 정이 성신이며, 달은 陰의 본이라 하였다.<sup>11</sup>

따라서 일상문은 양의 기운인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상문을 뜻하는 삼족오로 고구려에서 성립하여 왕권의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통일신라시대를 제외한 전시대에만 들어졌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 사대부 묘비의 冠石에 부조되는 경우도 많았다.<sup>12</sup>

한편 월상문은 계수나무 아래에서 약방아를 짚는 토끼와 두꺼비를 그린 것이다. 일상문과는 반대로 음의 속성을 지니면서도 무한순환론의 의미와 함께 長壽와 不死를 상징한다. 이 밖에도 新生과 영혼의 불멸, 군민의 상생과 민본의 상징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일상과 함께 표현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와 합일, 보름달의 경우 완전함, 풍요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기도 한다.<sup>13</sup>



도 13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비신내 일월문



도 12 진각국사비 비좌부(상-동면, 하-서면)

고려시대 탑비의 경우 탑비 내에 淺刻으로 문양을 새긴 <현화사탑비(1022)>와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1085)>에 일월상문이 나타난다(도 13). 이들 탑비는 비신부 상단 좌우에 삼족

11 임영주, 『한국문양사』(미진사, 1998), p. 78

12 김주미, 「조선시대 日象文 연구」, 『조선시대학보』 51 (2009), pp. 24-25, 38-39; 김주미, 「日象文의 시대별 전개와 천하관의 추이」, 『고조선단군학』 20 (2009) 참조.

13 김주미, 「한국 고대 월상문의 성립배경」, 『고조선단군학』 34 (2016), pp. 24-27.

오가 들어있는 일상문과 토끼와 두꺼비가 들어있는 월상문을 표현하였다. 이후 <선봉사 대각국사비(1132)>에서는 지붕돌 중앙 상단에 운문에 둘러 쌓여 있는 둥근 형태의 圓文이 앞뒤로 있는데, 일월상문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탑비에서의 일월상문은 비신에서 이수부로 다시 비좌로 이동되어 진각국사비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좌 좌우측에 일월상문이 새겨진 탑비는 진각국사비가 유일하다.<sup>14</sup>

### Ⅲ. 고려중기 탑비 조영의 추이와 진각국사비의 문제

#### 1. 고려시대 탑비형식의 변천

귀부, 비신, 이수의 3대요소를 갖춘 석비는 중국의 영향으로 신라시대 태종무열왕릉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신라말기 선종의 영향 아래 각 산문을 개창하고 다투어 선사의 현창사업으로 탑과 탑비를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몸은 거북, 머리는 용의 형상을 한 龍頭龜身의 한국형 탑비가 완성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초기부터 활발하게 승탑과 함께 탑비가 건립되었는데, 신라의 전통적인 양식을 기본으로 고려만의 독특한 탑비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고려초 태조는 개국을 도운 선승들의 비문을 왕명으로 짓게 하거나 손수 비문과 함께 제액의 쓰기도 하였다. 특히 최언위(868~944)로 하여금 국사의 비를 찬하게 만들어 전국 9곳에 달하는 탑비를 건립하였는데, 이는 고려초 탑비양식의 지방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5</sup>(표 3).

태조대에 시작된 고려초기 탑비 양식과 제작환경은 광종대(재위, 946~975)에도 지속되어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봉암사 정진왕사원오탑비(965)> 등과 함께 고려탑비의 최대작으로 불리는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비(975)>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11세기까지는 이와 같은 환경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비(1017)>, <거둔사 원공국사승묘탑비(1025)>, <칠장사 혜소국사탑비(1060)> 등이 있고 고려 탑비의 최고 걸작으로 불리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1085)>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도 14). 이들 탑비는 모두 귀부, 비신, 이수의 3대요소를 모두 갖춘 탑비이다.

<sup>14</sup> 일월상문에 대한 상징체계 및 전개에 대하여는 임영주, 앞의 책, pp. 78-85.

<sup>15</sup> 소재구,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pp. 27-29.

〈표 3〉 최연위가 찬한 비문

연번	탑비명	생몰년	입비년대	입비장소
1	홍령사 징효대사보인탑비	826~900	944년	영월
2	무위사 선각선사편광탑비	864~917	946년	강진
3	오룡사 법경대사보조혜광탑비	871~921	943년	개성
4	보리사 대경대사현기탑비	862~930	939년	여주
5	보현사 낭원대사원오탑비	854~930	940년	강릉
6	광조사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	870~936	937년	해주
7	비로사 진공대사보법탑비	855~937	939년	영주
8	명봉사 자적선사능운탑비	882~939	941년	예천
9	정토사 법경대사자등탑비	879~941	943년	충주

그러나 승탑과 탑비의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인 1101년 대각국사 의천의 입적과 승탑 및 탑비 건립을 통해 제작환경이 변화하게 된다.<sup>16</sup> 이후 국사나 왕사 등이 탑을 만들지 않거나 탑비를 대신할 묘지를 묘실에 함께 납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sup>17</sup> 이처럼 승탑을 건립하지 않고 탑비를 간소화하는 경향은 거의 1세기간 지속되다가 118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영국사 원각국사탑〉에서 다시 재현되는데, 전대에 비하여 현격 한 조형의 쇠퇴를 보인다(도 15).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탑비의 외형적 변화도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귀부, 비신, 이수를 지닌 탑비 형태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반야사 원경국사탑비(1128)〉는 이수가 지붕형태로 바뀌고 〈선봉사 대각국사탑비(1132)〉는 대석위에 비신을 세우



도 14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1085)



도 15 영국사 원각국사비 (1180년 전후)

<sup>16</sup> 종전에는 대각국사 의천의 탑이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영통사 복원과정에서 의천의 부도전지가 확인되었고 일부 부재가 발견되어 현재는 敬先院앞에 탑을 복원하였다.

<sup>17</sup> 12세기 승려들의 장례법에 대하여는 엄기표, 앞의 책, pp. 122-124. 참조.



도 16 고려중기이후 탑비의 변화-좌측부터 ①반야사 원경국사비(1128) ②선봉사 대각국사비(1132) ③서봉사 현오국사비(1185) ④보경사 원진국사비(1224)

고 이수를 놓는 특이한 모습이다. 또한 <서봉사 현오국사비(1185)>는 지대석 위에 비신만을 세운 단순화된 형태이고 <보경사 원진국사탑비(1224)>는 귀부 위에 비신을 놓고 이수를 생략하는 형태로 건립되었다(도 16).<sup>18</sup> 이를 참조해 보면 12세기에 들어 승려들의 탑을 건립하지 않고 매장하면서 승탑 조영이 급변하고 동시에 석조기술력의 쇠퇴가 전통적 탑비 단절과 변용으로 이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화장묘의 건립이 유행하면서 묘비형식의 묘지명을 제작한 것이 외부에 건립하는 탑비 형식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2. 백련사 사적비 귀부와와의 관계

진각국사 탑비를 고찰함에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비가 바로 백련사 사적비이다. 백련사 사적비는 조선후기인 1681년 사찰의 역사를 담은 비이다(도 17). 문제는 비신과 이수는 조선후기에 만들어졌으나 귀부가 이전에 백련사에 유존하였던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탑비를 재활용했다는 점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원묘국사 요세는 백련사에 머무르며 천태종의 중심사찰로 성장시켰으며 1245년 입적 후에 고종은 그를 국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원묘’, 탑호를 ‘중진탑’이라 내리고 崔滋에게 명하여 비문을 찬하도록 하였다. 비문은 『동문선』 권117에 실려 전해

<sup>18</sup> 이와 같은 탑비형식에 있어 龜趺螭首形, 龜趺屋蓋形, 方趺螭首形, 方趺形, 龜趺形, 方趺屋蓋形 등 6가지 형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귀부이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은 사례가 1곳씩만 나타나 형식분류에 명칭과 형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송이, 「고려시대 탑비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탑과 탑비가 현재 백련사에 남아 있지 않은데, 『만덕사지』, 『강진현지』, 『사적비비문』 등에 古碑, 즉 파괴되고 남은 원묘국사중진탑비의 귀부를 재활용하여 사적비를 건립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19</sup>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문헌자료나 연구 성과를 종합했을 때 백련사 사적비의 귀부가 원래 원묘국사의 탑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20</sup> 여기서 백련사 사적비 귀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는 진각국사 탑비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동시기의 귀부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세기 중엽은 승탑의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탑비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등 석조미술의 기술이 쇠락해 가는 시기이며 몽고의 침입으로 내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탑비 건립이 희귀하다. 둘째는 고려 후기 불교의 큰 주축인 조계종과 천태종을 대표하는 국사의 비이며 동시에 국왕의 승인으로 건립한 점에서 당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술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두 탑비의 제작 거리가 매우 근접하여 양식 공유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양식적 특성과 선후관계 및 나아가 고려탑비사에서 갖는 의미까지 도출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두 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선 돌의 재질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화강암은 석영, 흑운모, 사장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사장석이 많이 함유되어 밝은 빛을 띠는 화강섬록암이다. 그런데 이 귀부는 동일하게 석영, 흑운모와 함께 어두운 빛을 내는 담홍색의 정장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는 소위 알갈리 화강암이며 입자 관찰에도 사장석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sup>21</sup> 다음으로 용두의 표현에 있어 눈썹과 귀의 형태, 특히 머



도 17 백련사 사적비, 보물 제1396호

<sup>19</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기표, 「강진 백련사의 석조미술과 원묘국사의 부도와 탑비」, 『호남문화연구』 60 (2016), pp. 12-17.

<sup>20</sup> 최근 발표된 논고에서는 백련사 사적비의 양식적 고찰을 통하여 원묘국사가 입적하던 시기인 1245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주수완, 「백련사 사적비 귀부의 미술사적 의의」, 『강좌미술사』 48 (2017).

<sup>21</sup> 석재의 표면조사는 고배율 도구를 통해 관찰방식으로 필자가 직접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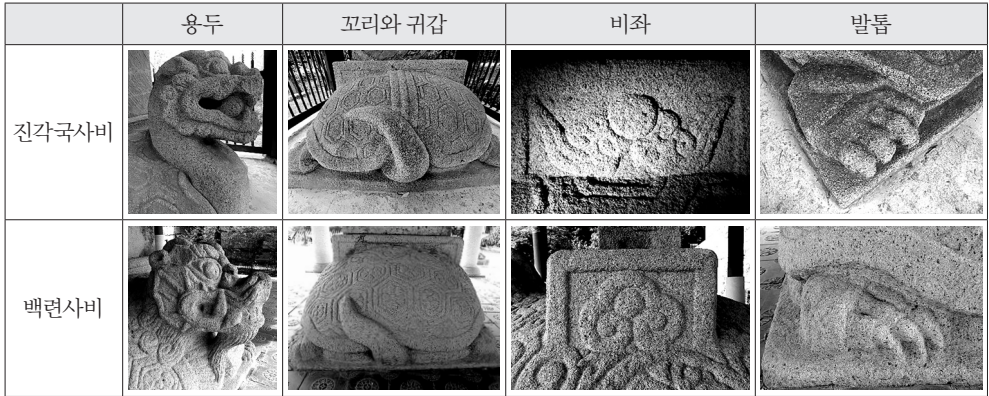
〈표 4〉 진각국사비와 백련사사적비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공통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崔滋의 찬(진각비는 음기, 백련사비는 양기)</li> <li>· 돌의 재질(석영, 흑운모, 담홍색 정장석으로 구성된 알칼리 화강암)</li> <li>· 용두의 눈썹, 귀형태, 머리뒤로 흘러내린 뿔(진각비1줄기, 백련사비2줄기)</li> <li>· 앞뒤다리의 형태</li> <li>· 꼬리의 형태와 방향, 표현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두의 형태(수염, 갈퀴유무, 이빨형태, 보주의 유무)</li> <li>· 용두의 자세(진각비는 S자형, 백련사비는 짧게 내민형)</li> <li>· 귀갑문과 세부표현방식</li> <li>· 발톱의 숫자(진각비4조, 백련사비5조)</li> <li>· 비좌의 문양(진각비 일월문, 백련사비 여의두문)</li> </ul>

리 뒤로 흘러내린 뿔이 진각국사비는 1개, 백련사 귀부는 2개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 모티프는 같다. 가장 유사한 점으로는 꼬리의 표현방식과 방향, 앞뒤다리의 형태와 표현방식이다. 대부분의 고려귀부들이 꼬리를 작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귀갑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귀부는 공통적으로 길게 표현하여 귀갑의 좌측으로 올라 있다. 특히 하단에 주름을 넣어 사실성을 강조한 모습은 이 귀부들 이외에 찾기 어려운 수법이다. 또한 발톱을 드러내 땅을 누르는 앞발의 표현과 뒷발은 전면을 향하여 접혀있는 모습 역시 동일하다.

반면 다른점이 더 많은데, 귀갑문과 귀갑의 표현방식이 전혀 다르다. 또한 발톱의 개수도 백련사비가 하나 더 많은 5조이다. 용두의 경우 진각국사비는 입주위에 뭉쳐진 수염을 표현한 것에 비해 백련사비는 어룡형 갈퀴와 사자의 갈기를 표현하였으며 턱 아래에 긴 수염이 있다. 또한 이 뿔의 형태도 다르며 진각국사비는 입안에 보주를 물고 있으나 백련사비는 보주를 생략하였다. 비좌의 마련수법에서는 양 귀부의 공통점이 나타나면서도 비좌 측면 문양에서는 진각국사비가 구름과 일월상문을 표현한 것에 비해 백련사비는 여의두문으로 표현했다. 비좌 상면에 비를 쬐는 방법도 다른데, 진각국사비는 동서단면에 있어 2단으로 남북단면에 있어 1단인 것에 비해 백련사비는 동서단면이 1단, 남북단면이 2단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4)(도 18).

이상 살펴본 두 귀부는 외형상 서로 다른 모습을 지고 있으면서도 동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양식 공유를 보이고 있다. 귀부의 크기는 지대석에 있어 진각국사비가 223×261cm, 백련사비가 191×240cm로 약 20cm 정도 진각국사비가 크다. 전체적인 표현에 있어 진각국사비는 용두에 적절한 공감감으로 곡선미를 나타내며 귀부에서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장중함을 강조하여 긴장감과 위엄이 느껴진다. 반면 백련사비는 용두에서 여러요소를 추가한 복잡함 함께 귀갑문 내의 화문과 아울러 비좌 아래에 담요를 덮어 놓은 것 같은 장식문양을 추가, 구성 자체가 느슨하여 긴장감을 상실하였으며 얼굴표현에서는 해학성마저 느껴진다. 결국 분명 같은 시대의



도 18 진각국사비와 백련사비 비교

양식을 공유하면서 세부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양식사적으로는 진각국사비가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진각국사비는 1250년에 건립되었으나 백련사비는 요세의 입적시기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입비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스승의 장례와 건탑을 주도한 靜明國師 天因이 스승입적 후 돌연 3년만인 1248년에 입적한 것으로 미루어 그 이전에 건탑과 탑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22</sup> 그러나 탑의 건립은 장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임에 비해 비의 건립은 건립까지의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고려시대 탑비의 건립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진각국사비도 입적 후 16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sup>23</sup> 따라서 요세의 제자인 天因이 장례와 건탑을 주도했으나 뜻하지 않게 일찍 입적하였을 뿐 아니라 탑비 건립까지의 절차와 시기적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그의 사후 백련사 3세인 圓院國師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up>24</sup> 그렇다하더라도 진각국사비가 건립된 1250년과 멀지 않은 시기임에는 확실해 보인다.

<sup>22</sup> 엄기표, 앞의 논문 (2016), p.36.

<sup>23</sup> 진각국사비 이전까지 확인 가능한 고려시대 탑비의 건립까지는 무위사 선각국사비는 29년, 옥룡사 동진대사비는 11년, 지곡사 진관선사비는 17년, 금산사 혜덕왕사비는 15년, 단속사 대감국사비는 14년, 서봉사 현오국사비는 6년, 보경사 원진국사비는 3년이 소요되었다. 김송이, 앞의 논문, p. 30. <표 4>참조.

<sup>24</sup> 『만덕사지』 권3 <天因爲圓妙國師立浮圖安骨祭文>에 스승인 요세의 건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탑의 형상을 서술한 기록이 있어 천인에 의하여 장례와 건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萬德寺誌』(아세아문화사, 1976), pp. 82-85; 엄기표, 앞의 논문 (2016), pp. 34-35.

### 3. 진각국사탑비의 원형추정과 문제점

진각국사탑이 건립되었던 1250년은 중단되었던 승탑들이 다시 건립되었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석조기술의 기량이 급격히 쇠퇴해 있었다. 가령 전통적인 귀부이수형의 탑비로 제작된 〈영국사 원각국사탑비(1180)〉는 몸체에 비하여 용두가 외소하며 발, 꼬리등의 표현이 너무 인위적이어서 당시 조각적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진각국사탑에 바로 앞서 제작된 〈보경사 원진국사비(1224)〉는 반대로 용두에 비해 신체가 외소하고 비좌의 복련이 도식화 되고 발과 꼬리 등의 세부표현이 조약하다.

이와 같은 당시의 제작환경을 놓고 본다면 진각국사탑 역시 무탑시대 이후를 대표하는 도식화된 귀부형식으로 제작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진각국사탑에서는 오히려 양식의 반전을 보이고 있다. 귀두의 표현은 당당하고 형태는 유려한 S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발톱의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한 사실적 양식은 이전의 기량으로 복귀한 탑비를 보는 듯하다. 또한 비좌에 표현된 일월상문은 탑비 조영사에서 유일한 것으로 수선사 2대조로서 진각국사의 위상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13세기 중엽 이와 같은 우수한 탑비가 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백련사 원묘국사 요세의 탑비 건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공교롭게도 고려 후기 수선사(조계종)와 백련사(천태종)로 대표되는 2개 큰 교단의 중심인 스님의 비가 필요하였고 당시 임금인 고종의 재가를 받아 최자가 각각의 음기와 양기를 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시대의 공유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방식을 택한 것은 제작 장인의 달랐을 가능성과 종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sup>25</sup> 따라서 각 종파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탑비 건립이 당시 큰 화제였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최고의 장인들이 펼친 공역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각국사비 음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기는 한림학사 崔滋가 왕명을 받들어 짓고 修禪社의 탁연이 글씨를 썼다. 음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중앙 및 지방관리, 토착향리, 국사의 법맥을 이은 승려와 특이하게 비구니까지 승속을 포함하여 모두 200

<sup>25</sup> 종파성을 보이는 승탑과 달리 귀부는 각자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같은 귀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다소 둔중해 보이는 귀부에 납작 엷드려있는 듯 한 포즈, 짧은 목에 긴 수염, 비늘이 표현된 발 등 공통양식을 보이는 귀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귀부가 〈칠장사 혜소국사비〉, 〈법천사지광국사비〉, 〈금산사 혜덕왕사진웅탑비〉 등 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법상종 계열의 사찰이기 때문에 종파에 따른 귀부 양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김송이, 앞의 논문, pp. 84-86.

인에 가까운 이름이 실려 있다. 이는 여타 고려시대 탐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이다. 특히 음기의 마지막에 탐비를 직접 제작한데 참여한 7인의 명단과 직능이 기록되어 있다.<sup>26</sup> 먼저 幹事立石으로 門人 心田, 明藏, 正淵, 宗挺 4인, 龜趺로 道者 宗然 1인, 刊者로 道者 守澁, 宗禮 2인이다. 여기서 입석은 비를 다듬고 세우는 사람, 귀부는 말그대로 거북을 조각하는 조각장일 것이며, 간자는 서각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탐비에 남아 있는 제작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석장, 철장, 목수 등과 함께 刻字가 주로 등장하는데, 〈선봉사 대각국사비(1132)〉부터 빠짐없이 등장하는 직렬이 立石이다. 특히 진감국사비에 입석이 4인이나 투입된 것으로 보아 비의 중심부인 비신을 다듬고 만드는 일이 중요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각 부분에 대한 분업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인은 고려후기로 갈수록 일반인보다는 승장들이 전담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이한 것은 고려탐비 장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부 조각가를 따로 명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진각국사비의 건립은 당시 고려사회의 큰 관심사였을 뿐 아니라 귀부의 전담 장인을 지정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수한 귀부조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의문은 진각국사비의 원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탐비의 제작에 있어 전통적인 귀부이수형 탐비의 건립이 단절되고 새로운 형식의 탐비들이 일반화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양식 퇴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영국사 원각국사탐비〉는 고려의 마지막 귀부이수형 탐비로 알려져 있다.<sup>27</sup> 이후 귀부를 비신받침으로 이용한 탐비는 〈보경사 원진국사비〉로 이수를 생략한 채 비신만을 세워 마감하였다. 그렇다면 진각국사비는 어떠한 원형을 지니고 있었을까? 귀부 조각은 전대의 기량을 되찾아 당대 최고의 양식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수가 사라지거나 옥개형 지붕으로 변화하는 고려탐비의 추이로 미루어 보아 귀부와 비신만으로 구성된 탐비였거나 옥개형 지붕을 지녔을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만일 이수가 없는 형태였다면 유독 탐비의 풍화와 훼손이 심각했던 이유도 비신을 보호하는 이수(혹은 옥개석형 지붕)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sup>26</sup> 진각국사비 음기의 정밀 판독은 민현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많은 연구의 활력이 되었다. 민현구,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음기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36 (1973) 참조. 판독 내용은 허홍식, 앞의 논문, pp. 96-108. 참조.

<sup>27</sup> 고려말인 회암사 나옹화상탐비(1377)는 귀부이수형 탐비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방식이 아닌 중국형식의 비이기 때문에 한국식 귀부이수형 탐비의 마지막은 영국사 원각국사탐비로 볼 수 있다.

## IV. 진각국사비가 고려탑비에서 갖는 미술사적 의의

탑비처럼 한 시대를 뛰어넘어 전시대에 걸쳐 통시대적으로 제작된 조영물도 흔하지 않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주로 한 개인의 행장을 담은 탑비가 유행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묘비가 널리 유행하고 도처에 신도비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양식적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고려시대의 탑비는 약 40여기 정도에 달한다.<sup>28</sup>

고려시대 탑비는 전대에 양식인 용두구신형을 더욱 발전시켜 10세기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여로 고려만의 양식적 완성을 이루었다. 특히 광종연간에는 종파와 상관없이 탑비의 건립이 이루어졌는데, 국사나 왕사의 신분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적 조영물이었다. 10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200여년간 귀부이수형 탑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각국사의 천의 탑 건립 이후 소위 무탑시대가 도래하면서 탑비도 함께 갑작스런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탑이 건립되지 않았던 12세기에도 탑비는 건립되었는데 이때 전통형에서 벗어나는 탑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1180년경 <영국사 원각국사탑>과 전통식의 귀부와 이수를 지닌 탑비가 건립되었으나 조형적으로 이미 사실성을 잃은 뒤였고 이를 마지막으로 전통식 귀부이수형 탑비도 소멸되어 버렸다.

월남사 진각국사비는 이미 고려탑비가 큰 변환기에 접어든 1250년에 건립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시기는 전통식 탑비조형이 서서히 해체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진각국사비는 반대로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사실적 양식과 조형감각, 뛰어난 세부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수선사 2대손이라는 명성과 함께 최고 지배층의 후원과 기진이 있었고 인근 백련사에 원묘국사 요세의 탑비 건립 또한 전대의 기량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려탑비에서 진각국사비가 갖는 미술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쇠퇴일로에 있었던 고려탑비에 전대 양식을 재현한 우수한 탑비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원묘국사 요세의 탑비와 함께 사실상 고려시대 한국형 귀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눈을 크게 떠서 정면을 바라보며 날카로운 이빨로 여의주를 고정하고 입을 크게 벌려 포효하는 듯한 표정은 고려초인 10세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이다. 특히 목을 길게 빼어 S자형의 자연스럽고 유려한 곡선을 나타낸 것은 고려초의 귀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법이다. 다만 신라말에서 고려초의 귀부에 자주 등장하는 흘날리는 갈퀴의 표현이라든지 瑞氣의

<sup>28</sup> 고려시대 탑비 목록과 건립시기는 엄기표, 앞의 책, pp. 120-126. <표 2>, 양정민, 「고려시대 석비의 비신조각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 118-119. 표 참조.

표현이 생략된 점에서 동세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후 고려가 원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 이후에는 점차 원의 영향을 받으며 전통적인 귀부양식이 소멸하면서 급격한 기량의 쇠퇴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無畏國師 丁午(?~1318)의 탑비로 추정되는 용암사지비는 원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중국형 탑비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도 19).



도 19 용암사 귀부(전 무외국사 비, 1318년경)

둘째, 비좌부에 일월문의 도입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日象文과 月象文은 왕권이나 권력의 상징물이면서 동시에 끝없이 순환하는 무한의 상징이기도 하다. 11세기 탑비의 비신 상부나 지붕돌 앞뒤 정상부에 새겨진 예도 있지만 국사의 행장을 받드는 비좌부에 이 문양을 새긴 것은 진감국사에 대한 특별한 예우 또는 그 이상으로 받아드려진다.

셋째, 원형의 복원에 있어 이수는 원래부터 없었거나 혹은 옥개석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고려의 탑비사를 보면 무탑시대가 시작되었던 12세기부터 이미 전통형 탑비의 변화와 함께 진각국사비를 건립하던 시기에는 귀부, 비신, 이수를 지닌 귀부이수형 탑비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수나 지붕돌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출현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 V. 맺음말

고려시대 탑비는 신라하대 9세기 선승들의 탑비에 영향아래 제작되었다. 그러나 고려초 태조왕건의 적극적 후원과 지원아래 다수의 작품을 남기면서 신라와는 다른 고려만의 독특한 양식을 탄생시켰다. 특히 최연위가 찬한 9개의 탑비가 전국적으로 건립되면서 새왕조의 힘을 담은 크고 위엄있는 탑비들이 건립되었다.

이후 약 150여년간 탑비예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라는 전대미문의 걸출한 탑비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 탑비를 마지막으로 고려탑비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기본적인 구성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심지어 한국형 탑비의 상징이었던 귀부마저 생략되는 탑비도 생겨난다. 즉 고려탑비사에 있어 12세기부터 고려말 중국풍의 탑비가 정착되는 14세기 말까지 약 150년



도 20 현 월남사지 진각국사탑비 비각

은 앞선 150년과는 상반되는 혼란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진각국사 탑비는 고려탑비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13세기 중엽, 즉 1250년에 건립되었다. 입적 후 탑비의 건립까지도 여러 가지 사유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나 특이하게도 탑이 건립된 장소와 탑비가 건립된 장소가 상이하다. 따라서 진각국사탑비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 2가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특히 탑과 탑비가 다른 장소에 건립된 이유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의문점에 머무르는 동안 정작 탑비 자체의 특징이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월남사에 남아 있는 진각국사탑비의 현황과 특징을 통해 본 탑비가 고려 석조미술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탑비는 무탑시대 이후 제작된 귀부로는 가장 위엄있고 훌륭한 조각양식을 지녀 전성기의 기량을 다시 회복한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동시기에 건립된 원묘국사 요세의 탑비 건립이 서로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고 음기에 명기된 200여명이 넘는 다수의 기진자의 지원과 분업화된 작업환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다른 고려시대 귀부에서 보이지 않는 용두의 S자형 곡선은 신라시대 호남지역의 전통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양식 복귀와 함께 다른 귀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의미를 비좌의 일월상문을 통해 부여하였고 이는 다른 탑비와 구분되는 중요한 모티프로 파악하였다.

귀부에 비신을 올리는 비석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출현하여 당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우리나라는 태종무열왕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9세기 선종의 유행과 함께 입적후 탑과 동반

하는 탑비의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귀두형에서 벗어나 용두구신형의 한국형 탑비의 성립을 보게 된다. 결국 진각국사 탑비는 신라하대에 성립하여 고려시대중기까지 끊임없이 제작된 한국형 귀부의 사실상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그러나 진각국사비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발굴 등을 통하여 이수 혹은 지붕돌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고려탑비사의 완벽한 양식적 계보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재 탑비를 보호하고 있는 비각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현재 탑비가 있는 곳은 월남사지 서편으로 주변의 나무와 신우대 숲 등 지형상 태양광을 받기 어려운데다가 더해 비각으로 인하여 내부 보존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도 20).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귀부는 항시 두터운 녹색의 지의류가 부착되어 있어 풍화가 가속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조유물의 가장 무서운 적은 습기와 지의류의 부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주변 나무와 대숲을 제거하고 비각도 크기를 넓혀 햇빛과 통풍을 고려하는 형태로 개선했으면 한다. 혹은 악화 일로의 귀부와 이미 자체적인 보존력을 상실한 비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원비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고 원 장소에는 비신을 포함한 복제품을 세우는 방법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아닌가 한다.

**\*주제어(key words)** 月南寺址(Wollamsa Temple site), 眞覺國師(National Preceptor Jingak), 慧謚(Hyeshim), 龜趺(Turtle-shaped pedestal), 塔碑(Stone stele), 修禪社(Suseonsa Temple), 白蓮社(Baengnyeonsa Temple)

▣ 투고일 2017년 12월 3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월 21일 ▣

## 참고문헌

- 『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5.
-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5.
- 『萬德寺誌』, 아세아문화사, 1976.
- 엄기표,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임영주, 『한국문양사』, 미진사, 1998.
- 김송이, 『고려시대 탑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주미, 『日象文의 시대별 전개와 천하관의 추이』, 『고조선단군학』 20, 2009.
- \_\_\_\_\_, 『조선시대 日象文 연구』, 『조선시대학보』 51, 2009.
- \_\_\_\_\_, 『한국 고대 월상문의 성립배경』, 『고조선단군학』 34, 2016.
- 민현구,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의 음기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36, 1973.
- 배종민, 『월남사와 최씨 무인정권』, 『호남문화연구』 46, 2009.
- 소재구, 『신라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양정민, 『고려시대 석비의 비신조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엄기표, 『강진 백련사의 석조미술과 원묘국사의 부도와 탑비』, 『호남문화연구』 60, 2016.
- 이병희, 『고려, 조선초기 월남사의 처지와 위상』,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활용 학술대회』, 2015.
- 주수완, 『백련사 사적비 귀부의 미술사적 의의』, 『강좌미술사』 48, 2017.
- 허홍식, 『월남사 진각국사 탑비의 복원을 위한 준비 작업』, 『월남사의 변천과 정비 활용 학술회의』, 2015.

## 국문초록

탑비는 국사나 왕사에게만 허락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조형물이다. 따라서 탑비 건립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또 많은 제자 승려들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재가진자들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했다. 결국 탑비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 나타나는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 언급한 진각국사(1178-1234) 원조탑비는 개인의 행장을 담은 탑비로서는 2가지 점에서 이례적이다. 첫째, 탑과 비의 건립장소가 다를 뿐 아니라 매우 원거리에 위치한 점이다. 둘째 탑이 건립된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무엇보다 고려 중기 이후 급격히 쇠락하는 가운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점이다.

진각국사 탑비는 고려탑비사에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졌던 13세기 중엽, 즉 1250년에 건립되었다. 이때는 龜趺, 塔碑, 螭首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탑비형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각국사비는 13세기 이후에 귀부로는 가장 위엄있고 훌륭한 조각양식을 지녀 전성기의 기량을 다시 회복한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같은 시기에 건립된 백련사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탑비 건립이 큰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탑비 건립에 참여한 기진자 200여명의 지원과 분업화된 작업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형적으로는 다른 고려시대 귀부에서 보이지 않는 용두의 S자형 곡선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호남 지역의 전통을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비좌의 일월상문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귀부에 비신을 올리는 비석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출현하여 당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우리나라는 태종무열왕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9세기 선종불교의 유행과 함께 한국형 탑비의 성립을 이루며 발전해 간다. 진각국사비는 신라하대에 성립하여 고려시대중기까지 제작된 한국형 귀부의 사실상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 발굴을 통하여 현재 결실된 지붕들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고려탑비사의 완벽한 양식적 계보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Characteristics and Style of the Stone Stele National Preceptor Jingak at the Wollamsa Temple Site

Shin, Yong-chul\*

A stone stele is a memorial monument that is erected for a national or royal preceptor. The erection of the stele, which required various procedures, was possible only when pupil monks, lay people and the king approved and cooperated. The stone stele is also a significant work of art that shows the highest level of contemporaneous craftsmanship.

The stone stele for National Preceptor Jingak (1178-1234), which contains a record of his life and achievements, is a unique example for two reasons. First, not only are the locations for the monk's stupa and the stele different, they are far apart each other. Second, it took 15 years after the monk's stupa for the stele finally be erected. It still shows a great level of craftsmanship, even though the Goryeo Dynasty gradually declined after the mid-Goryeo period.

The stele was constructed in 1250, or the mid-13th century, when the style of stone steles of Goryeo show the most dynamic changes. This was the time when the traditional format of a Goryeo stele, which consists of a turtle-shaped pedestal, stele, and dragon-head sculpture on the top, went out of fashion, and, a new style emerged. Nevertheless, the turtle-shaped base of the stele for National Preceptor Jingak retains the most superb sculpture style

---

\* Yangsan Museum

among other turtle-shaped bases after 13th century, as it exemplifies the highest level of craftsmanship of the precedent golden age. In fact, it was inspired by the creation of a stele for Wonmyo-National Preceptor Yose (1163-1245) of Baengnyeonsa Temple, which was erected the same period. Another reason of the quality of the stele can be found in the support of about 200 donors for the Jingak stele construction as well as in artisans' division of work.

In terms of its style,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S" curved line at the turtle's head, which has not been found in other turtle-shaped pedestals from the Goryeo period, might have been inherited from the Honam area's tradition rooted in the Silla period. The sun-and-moon motif on the stele's pedestal also suggests a special meaning.

A stele monument, the body of which is installed on a turtle-shaped pedestal, first appeared during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in China and became prevalent during the Tang Dynasty. The first example in Korea was the stele for King Taejong Muyeol. Along with Korean Zen's popularity in the ninth century, a Korean style of stele monument was established. The stele for Jingak is a significant example mainly because this is the last work using the Korean-styled turtle pedestal, which had been constantly in production since its creation during the later Silla period. If a stone roof once stood over the stele and is confirmed by further research, it will complete the stylistic lineage of the stele monument in the Goryeo period.